

‘BCS CUP’을 통해 바라본 전투지휘훈련의 미래

<육군 전투지휘 시뮬레이션 경연대회>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육군본부 주관으로 ‘국제 육군 M&S 학술 콘퍼런스 및 전시회 (IAMSEC)’가 열렸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곳은 ‘육군 전투지휘 시뮬레이션 경연대회 (BCS CUP)’ 현장이었다. ‘BCS CUP’은 야전부대, 교육기관 등 각 부대에서 총 32개팀이 출전해 약 한 달간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22보병사단 등 4개팀이 준결승에 올라와 결승까지 뜨거운 경기를 치렀다.

경기는 공격과 방어를 각 한 번씩 한다. 선수들은 기능별 역할을 맡아 게임모델(장조21 등)을 조작하지 않고 실시간 ‘상황 판단-결심-대응’ 과정을 거쳐 게임기를 조작하는 모의병에게 전술적 지시를 내린다. 이어 통제선 확보, 지휘소 파괴 등을 수행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번 ‘BCS CUP’은 이번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전 경기가 실제 전장과 같이 긴장감 넘치게 진행돼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은 한남대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팀이었다. 전술교육을 일부 받은 후보생들은 예선 초반



윤 동 희 소령
육군전투지휘훈련단
대항군운용처

부터 예상을 뒤엎고 야전부대, 교육기관에서 출전한 경쟁한 상대를 이기고 8강까지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도 이번이 생겼다. 결승전은 전투지휘훈련단 대항군운용처와 22사단이 겨뤘다. 대부분 대항군운용처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근소한 차로 22사단이 최종 우승했다. 이 결과를 보고 ‘전술에는 답이 없다’는 것과 전투지휘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 군의 문제 중 하나는 실전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전술 훈련 등으로 극복해야 하나 훈련장 부족, 안전, 민원 등으로 훈련에 제한이 많고 동일한 조건(훈련장소, 기상 등)으로 훈련해 다양한 전술상황을 경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전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전투지휘훈련인 듯하다.

전투지휘훈련은 전투원이 직접 전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세부적으로 전장 실상을 구현하지 못한다. 훈련 때 지휘관·참모가 각 기능을 통합, 전술적 판단을 내려 간접적으로 전장의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전투지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산출된 전투(모의) 결과로 과오를 분석, 교훈을 얻고 작전계획 보완 및 전투발전 등으로 이어진다.

현재는 군단·사단급 제대를 대상으로 훈련한다. 주기가 길지만 미래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 등이 반영돼 훈련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모의요원 없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로 즉각 훈련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하면 ‘BCS CUP’처럼 적은 인원으로도 쉽게 훈련해 전 제대가 전투 수행력을 배양하는 훈련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투지휘훈련단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원장 등을 부대로 초청해 실전적인 현장 토의를 하는 등 변화를 모색 중이다. 앞으로 전투지휘훈련은 육·해·공을 통합해 군 전투력 육성의 중심 역할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망구다이 훈련’을 다녀와서



최 두 호 원사
육군1포병여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힘든 훈련은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육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부대의 주임원사로서 이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최근엔 한미 연합 부사관 훈련의 일환으로 시행한 ‘망구다이(Mangudai) 훈련’에 참가해 이 진리를 확인했다.

몽골어로 ‘붉은 전사’를 뜻하는 망구다이는 13세기 칭기즈칸이 전사들을 혹독하게 길러 낸 훈련에서 유래했다.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을 제공하고 전장과 흡사한 극한상황을 부여하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미군 부사관들과 함께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솔직히 훈련 전에는 나이가 피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한미 원사들과 같이하자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강한 자는 남을 이기는 이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긴 사람”이라는 말처럼 나이와 체력적 한계를 이겨내는 정신력을 배울 수 있게 됐다.

훈련받는 동안에는 일상 속 나태함을 벗어던지고 군인으로서 본모습에 집중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군장을 서로 나눠 메는 모습을 보며 전우애를, 독도법 훈련 시엔 내 위치를 파악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본기를, 전투부상자처치(TCCC)와 유격훈련에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팀워크를 배웠다. 이따금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고 강인한 ‘붉은 전사’가 될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힘든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극한의 상황에서 비로소 인간의 본성과 동료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몸을 짓누르는 군장과 보트의 무게, 쏟아지는 비, 진흙탕, 잠과의 사투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 지고 포기하려는 전우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개인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강력한 결속이 싹트며 전우애가 피어났다.

이 고통을 이겨 낸 경험은 자신감이란 강력한 무기가 돼 마음에 새겨졌다. ‘이렇게 힘든 훈련도 완수했으니 실전에서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이 자신감은 전장에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망구다이 훈련’은 “당신들은 강하다. 못 할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해 주는 귀한 기회였다.

훈련을 마치고 주임원사 역할로 돌아왔다. 훈련 때 체험한 것들을 소중한 우리 부대원에게 전해 주고 싶다. 부대원들이 강인함을 장착하고 진정한 리더십과 전우애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부대는 한층 강해질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붉은 전사’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받는 강군으로!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위기의 순간 세상을 지탱해 온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맞서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최근 56년 만에 재심을 거쳐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오랜 침묵과 편견을 요구해 왔는지 잘 보여 준다. 자신을 방어한 행동조차 처벌받았던 고난의 세월, 할머니를 지탱한 것은 스스로의 용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조력자들의 연대였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곁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고 말해 주는 동료의 목소리다.

이러한 따뜻한 용기와 연대는 우리 군




이 지 영 성교충전문상담관
육군인사사령부

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전우 간 신뢰와 존중은 전투력의 토대이자 우리 군 기강의 근본이다. 그렇기에 성희롱·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위협이 된다. 연말연시는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들뜬 분위기에서 경계가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군이 이 기간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이유다.

우리 군은 그동안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대응체계를 정교하게 갖추고 지속 발전시켜왔다. 아무리 촘촘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결

국 각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고통받는 전우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고 얘기해 주고 손을 내밀 연대의 마음이 있는가?”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단단한 조직, 전우를 지켜 낼 수 있는 성숙한 군대가 진정한 강군이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갖춘 군이야말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안정된 안보환경을 만드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세심히 살피는 관심과 부조리한 것을 멈추게 하는 용기, 이 두 마음이면 충분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용기와 연대가 모여 전우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에게는 흔들림 없이 신뢰받는 강군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 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카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가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